

하바드 세미나 성황

— 전국 180여명 양축가 모여 —

취재 : 남두희



전국 부회장·종계장·육계사육농가
관계자 180명이 모인 세미나 광경

(주)신기농장·대한부로이라(대표 이상윤)는 지난 3월 20일(금) 오후부터 1박 2일간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전국 양계인 180여명이 모인가운데 '87하바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세미나에서 이상윤사장은 인사를 통해 「양계산업은 대내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바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진제하고 육계업의 성장잠재력은 크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안정된 육계업발전을 위한 계열화체제도 입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기농장은 고객서비스를 한층 보강해 열과성으로 양축가들에게 노력을 다할뜻을 밝혔다.

세미나는 오꾸무라사장(일본양계연구소)의 「육용계개량 및 사양관리요점」, 조성남실장(신기농장)의 「87경기전망」 박근식박사(가축위생연구소)의 「산란저하 질병대책」에 대하여 강의가 있었다.

이어서 둘째날에는 일본 미야마부로일러(주) 하마나사장의 「일본 육계계열화 사업」에 대해 김영철교수(건대 축산대학)의 「한국경제동향과 양계업방향」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유창우부장의 사회로 질의응답을 가진후 폐회했다.

1박 2일의 세미나에는 전국의 부회장, 종계장, 육계사육농가 대표자들이1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특히 시종일관 참석자들의 높은 청강률은 양계산업발전 의지

생산성증대를 위해서
 암종계 체중관리는 필수이다.
 숫종계 생리에 맞는 전문사료를 급여해
 정액의 산출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상운 사장)



(오꾸무라 소장)



(박근식 박사)

의 한 단면을 보는듯했다. 수강 뿐만 아니라 질의응답에도 심도 깊은 질문이 이어져 양계인들이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력이 대단함을 입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중 일부를 발췌 게재한다.

■ 암종계 관리의 요점

사료효율을 높여 경제적으로 사육하기 위해 △체중의 제한사육 △균일한 체중의 종계 △계사환경의 정비 △올바른 광선관리 △질병발생 방지 △철저한 사양관리 기록과 계군의 관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암종계 체중관리를 위해서 ① 가능한 빨리 제한 급여를 실시해 초기체중이 크지 않도록 한다 ② 13~14주령시까지 사료급여를 제한해 체중을 조절한다. ③ 14주령 이후 사료량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적절한 체중 증가로 성성숙 적기유도) ④ 20주령부터 초산개시까지 체중증가 시켜 건설한 살분임이 필요하다 ⑤

24~25주령에 산란율 5%정도가 되면 빠른속도로 사료량을 증가시켜 산란 20~30%때에 최대량의 사료를 급여하고 이후 증가는 삼간다.

■ 숫종계 분리사육

육성기간 중에는 암, 수 분리하여 사육하고(칸막이 사용) 20주령시 암종계의 이동에 앞서 5~7일정도 먼저 성계사에 숫종계를 이동시켜 숫종계용 급이기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그후에 암종계를 이동, 편입시킨다(평사의 경우). 숫종계용 급이기는 충분하게 배치해 사료급여시 일시에 같은 량의 사료가 배급되게 하여 균일성을 유지한다(평사의 경우).

암종계의 초산시기인 24~25주령시까지의 숫종계의 체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사육한다. 즉 20주령 대비 25주령시 체중이 약 800g~1000g정도 증가되어야 수정능력이 갖추어진다고(평사, 케지사육 공통사항). 수정능력이 완전하다고 판단되면 사료량을 제한한다. 계절이나 체중, 사료의 영양수준 등을 고려해 급여량을 120~145g의 범위로 조정한다.

숫종계사료는 저단백질, 칼슘 1%의 것이 바람직하다. 육성시부터 성계까지 같은 영양수준도 좋다. 특히, 26주령 이후는 체중의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사육해야 정액의 양이 많고 수정율도 좋다.

주의사항 - 숫종계는 암종계에 비하여 지방이 적기 때문에 사료량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살이 빠지게 된다. 지나치게 체중(근육)이 감소되면 최후에는 수정능력마저 잃게 된다. 특히 추운 계절에는 열량이 부족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운다.

■ 수정율저하 원인과 대책

- 육종적요인 : 증체율의 개량, 특히 숫계통의 증체
- 관리상의 문제 : 체중조절의 실패, 계사바닥의 관리불량, 숫종계선발의 부정확, 급이급수상태의 불량, 점등관리의 실패
- 환경적조건 : 계사구조, 환기불량, 온도(고온·저온)
- 영양상의 문제 : 과도한 영양(체중증가), 숫종계사료의 단백질, 칼슘과잉, 비타민의 부족, 아미노산의 불균형

소독의 철저와 백신예방의 철저,
지역별 공동자율방역체제 구축,
농장출입의 철저한 통제는
산란성증대에 필수여건이다.

- 질병 : 질병은 모든 종류가 수정율을 저하시키는데 특히, IB, 마이코프라스마, EDS, ND, 각약 등이 큰 영향을 준다.
- 종란의 취급 : 더러운 알, 파란, 집란회수, 저란온도, 종란소독 및 세척, 저란기간
- 부화관리의 문제 : 부화기술의 부족, 부화기의 정비불량, 노후화

■ 닭의 산란저하요인과 대책

살모넬라, 캄피로박터, 녹농균, 마이코프라스마, 뉴캐슬, 닭뇌척수염, 전염성후두기관염, EDS'76, IB, MD, 레오 바이러스 등 질병에 감염되거나 환경온도·위생의 부적절, 스트레스, 영양결핍 등은 산란율을 저하시킨다.

이의 대책으로 소독철저, 동시입출하 (all-in-all-out), 백신예방, 지역별 자율방역기구 조직, 농장출입 통제 등의 철저를 기한다.

■ 일본 브로일러산업 현황

일본의 닭고기 수입량은 지난 10년동안에 비해 85/86 한해동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소비경향도 가계소비 위주에서 점차 가공용, 음식점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외식산업의 소비량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日本 닭고기 수입량

구 분	1975	1985	1986
국내산	60만M/T	120만	124만
수입량	2만	12만	17.5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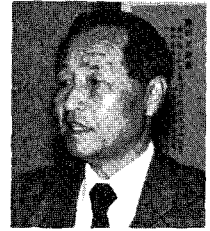
닭고기 소비의 구성

년 도	가계용	공업용	가공용
1975	52%	45%	3%
1985	40%	52.5%	7.5%

일본의 경우 1964년 올림픽개최이후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사료공급량 증대로 축산농가 숫자는 증가되었고 육계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몇차례의 오일쇼크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자구책으로 대기업을(상사위주) 중심으로 계열화생산체계가 도입되었다. 오늘날 개인농가단위 생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과거 10여년전에는 연간 10% 이상 생산이 증가되면 불



(하마나 사장)



(김영철 교수)



(조성남 실장)

황이 찾아오던것이 최근에는 6% 이상이 증산되면 불황이 온다. 3% 정도의 물량증가로 육계산업을 안정시킬 수 있다.

종계(P.S)는 상품이 아니다. 병아리를 닭고기(상품)로 만들어 소비자가 즐겨 찾도록 생산해 내야 한다. 자금력 조직력이 풍부한 기업과 연계하여 간편하고 싸게, 우수한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핵가족화경향, 여성사 회진출 등으로 가계소비는 점차 줄고 외식을 즐기는 층이 많은 소비자 기호에 맞추어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생산성향상, 계사이용률확대 등 노력을 경주해야만 살아남는다.

■ 한국경제와 양계산업 발전

좁은 면적에서 많은 인구가 먹고 살기위하여 우리나라는 쌀농업이 발달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고급식품인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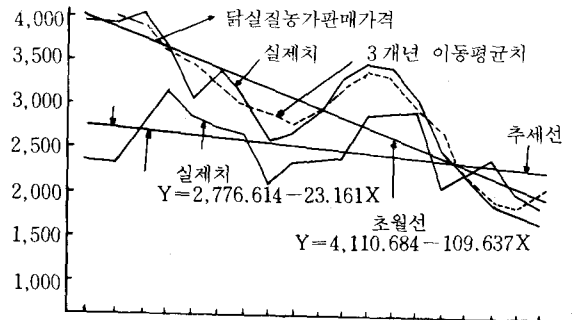
산물을 찾는 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있는 사업이며 계란생산은 세계평균수준(인구대비)에 이르고 있다. 축산업 특히 양계업에 있어서 △가격의 불안정 △유통구조의 전근대성 △사료문제(해외의존)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모든 산업이 발전지향적으로 서서히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데 비해 양계업은 가격에 있어 지난 20년간 실질농가 판매가격이 0.8~1.0%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사양산업화). 이는 이윤감소를 의미하고 이윤의 감소는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발전의 둔화를 초래하고 있다. (도표1,2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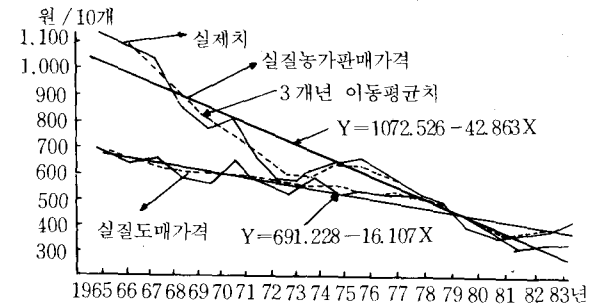
그러나 양계산업은 지난 20년동안 실질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산·수요면에서 계속 성장해왔다. 이는 이윤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영합리화, 규모확대를 모색해 왔으며 자체내 기술개발로 생산성향상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제 양계산업은 수급불균형 개선을 위한 계절변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급·소비 측면에서 다같이 노력해야 하며 양계농가 권익보호장치 대책강구, 유통기능 효율화로 양계농가의 이익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발적이고 운영의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생산, 유통 각단계에서 공히 이익을 추구하고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협동조합조직의 도입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도표 1〉 닭실질농가판매가격 (2.0kg), 실질도매가 (원 / 2kg)격 (1.8kg)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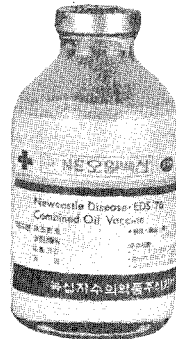
〈도표 2〉 계란 실질가격 추세변동, 1965~83



국내최초로
오일백신 개발에
성공!

자
매
품
ND 오일백신
EDS 오일백신

ND · EDS
혼합오일백신



NE오일백신은

1. 면역이 잘되고
2. 면역이 오래 지속되며
3.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NE오일백신은

500수분 (250ml)에
₩ 38,000입니다.

NE오일백신

⊕ 녹십자수의약품(주)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1031-29
☎ 582-9181~5
본사·공장: 경기도용인군기흥읍구갈리227-5
☎ 수원(8)3423/4